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와 精氣神의 關聯性에 關한 研究

김태우* · 윤중화*

* :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침구학교실

I. 緒論

許浚의 <<東醫寶鑑 · 序>>에서 宣祖는 “且人之疾病 皆生於不善調攝 修養爲先 藥石次之”라 하였고, <集例>에서는 “黃庭經 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 道家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¹⁾라고 하여, 東醫寶鑑은 道教의 철학적 원리를 주로 하여 東醫寶鑑의 의학사상을 설명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사람의 몸이 비록 안으로는 五臟六腑, 밖으로는 筋骨肌肉血脈皮膚로 되어 있지만 그 주체는 精·氣·神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따로 분리하여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속에서 氣의 상태로 나타나며, 또한 인체의 양면인 정신과 육체는 精과 神의 이원적 요소의 결합이 아닌 기의 왕래에 의한 순역의 결과로 변화한 일원적 관점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道家三寶라고 불리워지는 精·氣·神의 이론을 기초로 인체를 온전히 보존하여 생의 근본을 기른다는 東

1)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 10.

醫寶鑑만의 독창적인 양생사상을 성립하였다.²⁾

이러한 의학사상을 가진 東醫寶鑑을 펼쳐 보았을 때 가장 첫 권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림이 身形臟腑圖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의서 가운데 이처럼 명확한 인체 내부도를 그려 놓은 것은 없었다.³⁾ 그러나 身形臟腑圖는 이를 참고했다고 보여지는 <<萬病回春>>의 <側身人圖>나 <<醫學入門>>의 <內景圖>에 비하여 해부학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해 오히려 못한 부분이 많고, 다른 內景圖들에 비해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동의보감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체 내부의 모습이 아니라, 동의보감의 철학적 배경인 道家 및 精氣神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이에 저자는 東醫寶鑑에 있어서 身形臟腑圖가 다른 內景圖들과의 비교하고, 精氣神의 사상과 身形臟腑圖와의 關聯性에 관하여 研究해 보고자 한다.

2) 국순호, 東醫寶鑑중의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연구2.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 논문집제6권 ; 제1호 : 227.

3) 김호, 許浚의 東醫寶鑑 연구. 서울. 일지사. 2003 : 175.

II. 本論

1. 內景圖

內景圖는 內臟圖, 五臟圖, 臟象圖 등으로도 칭해지며, 각 서적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오늘날 古代 中國의 醫書들 중 內景圖를 수록하였다고 전해지는 책들이 여럿 있지만 모두 현존하지 않고 서목으로만 확인될 뿐이다. 반면에, 도가 계통의 서적들에는 상당수의 인체 내부도 잔형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의학은 醫家들의 노력 뿐 아니라 道家들에 의해서도 발달되었기 때문이다⁴⁾.

道家類 內景圖로는 먼저 <<道藏>>에 수록되어 있는 <五臟圖>를 꼽을 수 있다. 육조시대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黃庭五臟圖>>⁵⁾, 그와 같은 계통으로 <<黃庭五臟內景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五臟六腑補瀉圖>>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도형들은 인체에 대한 의학 지식

4) 上揭書 : 179.

5) 최창록 옮김. 황정경. 서울. 도화문화사. 1993 : 288-294.

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주술적이고 秘儀的인 표현으로 장기를 상징하는 신과 이를 대표하는 동물들을 그리는데 더 주력하였다. <<道藏>>에 전해지는 이러한 그림들은 조선초기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동일한 계통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 최초로 인체에 대한 의학지식을 표현한 인체 内部圖는 10세기 전반 오대의 燕眞人이 그렸다는 <烟蘿圖>로 알려져 있다. 1045년 반란을 일으켰다 사형된 歐希范과 그 당여를 해부하여 그려진 <歐希范五臟圖>가 있고, 그 후 이를 기본으로 內景圖가 그려졌다.⁶⁾

(1) 道家의 內景圖

1) 黃庭經의 內景圖

黃庭經에서는 五臟에 관하여 “五臟은 다섯 신의 집인데 … ”⁷⁾라고 하여 각 五臟圖에 그에 해당하는 神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2) 醫方類聚의 內景圖

醫方類聚의 內景圖는 중앙에 오장의 형태를 그리고 그 상부에 그

에 해당하는 卦, 그리고 아래에는 五臟의 神을 표현하여 도가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3) 東醫寶鑑과 道家의 五臟圖

<<東醫寶鑑·神>>에서는 黃庭經의 말을 빌어 “肝神의 이름은 龍烟이고 字는 含明이다. 키는 7촌이고 봉황의 무늬가 그려지고 옥구슬이 달린 푸른 비단옷을 입었으며 형상은 매달린 박과 같고 빛깔은 靑紫色이다. 心神의 이름은 丹

6) 김호. 前掲書 : 179-182.

7) 최창록 옮김. 前掲書 : 167.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

元이고 자는 守靈이다. 키는 9촌이고 붉은 방울을 단 날아갈 듯한 치마를 입었는데, 피지 않은 연꽃과 같은 모양에 빛깔은 붉은 색이다. 脾神은 이름은 常在고, 자는 魂停이다. 키는 7촌 6푼이고 누런 비단옷을 입었는데 형상은 엎어놓은 접시 같고 빛깔은 누렇다. 肺神의 이름은 皓華고, 자는 虛成이다. 키는 8촌이고 흰 비단으로 된 위 아래 옷을 입고 누런 구름이 그려진 띠를 띠고 있는데 형상은 꽃무늬의 양산이나 엎어놓은 경쇠와 같고 빛깔은 홍백색이다. 腎神의 이름은 玄冥이고 자는 育嬰이다. 키는 3촌 6푼이고 푸른빛깔의 비단옷을 입고 형상은 둥근 돌 같고 빛깔은 검다. 膽神의 이름은 龍曜고, 자는 威明이다. 키는 3촌 6푼이고 아홉가지 색깔의 비단 옷과 초록빛 꽃치마를 입고 형상은 매달린 박 같고 빛깔은 청색이다

.”⁸⁾라고 하여 五臟神에 대한 五臟圖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도가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2) 明堂圖

明堂圖는 맥을 전제로 한 穴의 체계를 그린 것이다. ‘明堂’이란 원래 天道의 불순에서 생기는 인간이나 농경에 대한 災異를 피하기 위해 하늘, 상제, 祖靈 등을 제사 지내는 왕궁의 건축물을 일컫는 용어였다. 명당이라는 말을 쓴 데에는, 경혈 자체가 천지자연의 운행과 그 不調에서 생기는 인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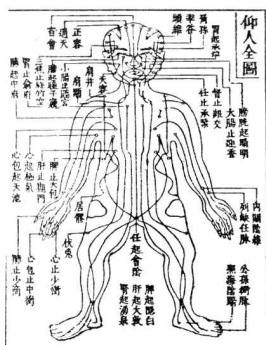
8) 許浚. 前掲書 : 180.

“黃庭經曰肝神龍烟字含明形長七寸青錦衣鳳玉鈴狀如懸瓠其色青紫心神丹元字守靈形長九寸丹鈴飛裳狀如未開垂蓮其色赤脾神常在字魂停形長七寸六分黃錦之衣狀如覆盆其色黃肺神皓華字虛成形長八寸素錦衣裳黃雲之帶狀如華蓋覆磬其色紅白腎神玄冥字育嬰形長三寸六分蒼錦之衣狀如圓石其色黑膽神龍曜字威明形長三寸六分九色錦衣綠華裙狀如懸瓠其色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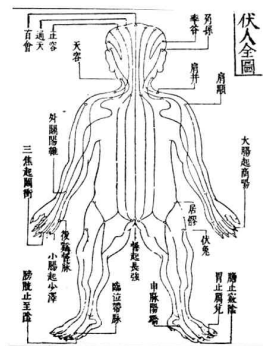
災殃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쓰이는 기의 문호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明堂圖는 脈을 線과 穴로 표시한 人體圖다. 문헌상으로는 明堂圖가 106년에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한다. <<隋書>><經籍志>에는 <神農明堂圖>, <明堂孔穴圖>, <十二人圖>, <黃帝十二經脈明堂五臟人圖>, <偃側圖> 등 십여종이 수록되어 있어서 隋代 에 明堂圖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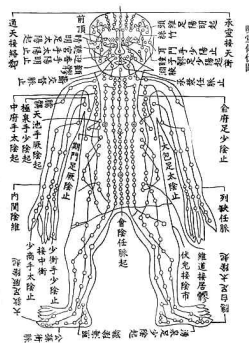
明堂圖는 경락과 거기에 위치한 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해부학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東醫寶鑑에도 明堂圖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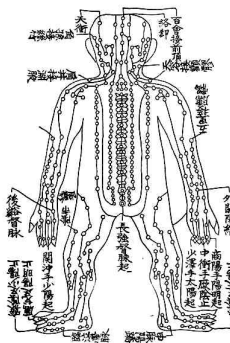
<類經圖翼·伏人全圖>



<類經圖翼·伏人全圖>



<醫學入門·明堂全面圖>



<醫學入門·明堂後面圖>

(3) 臟腑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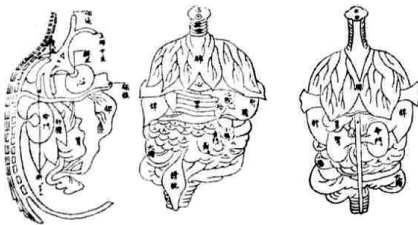
臟腑圖는 말 그대로 장부의 모양과 위치를 그린 것이다.

9) 박석준. 동아시아의 전근대 사회의 특성과 東醫寶鑑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4 : 114.

<烟蘿圖>와 <存眞圖> 계통의 해부도 들은 내부를 正·後面을 그린 데 비해 명대의 ‘臟象圖’ 들과 <身形臟腑圖>는 측면을 위주로 하였다.

1) 正·後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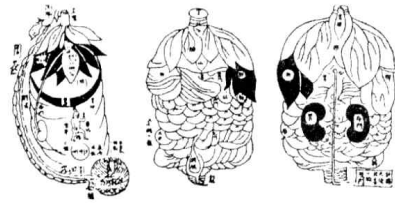
<存眞圖>, <烟蘿圖>, <歐希范五臟圖>,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등이 正·後面圖에 속한다. 전통적인 중국 <存眞圖> 계열의 內景圖는 頭部가 없이 인체의 몸통만을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내장만을 잘 표현하면 족하였으므로 頭部를 그리는 일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¹⁰⁾



烟蘿圖



歐希范五臟圖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存眞圖



存眞圖

2) 側面圖

명대의 ‘臟腑圖’인 <<萬病回春>>의 <側身人圖>, <<醫學入門>>의 <內臟圖>, <<類經圖翼>>의 <臟腑圖>와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는 측면을 위주로 하였다.

側面圖는 正·後面圖에서 그릴 수 없는 인체의 부위인 척추가 나타나 있다. 측면도의 그림들을 보면 모두 脊椎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형성되어있다.

側面圖를 강조한 그림에서는 頭部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腦’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부를 사슬과 같이 생긴 척추로

10) 김호. 前掲書 : 184.

몸통과 연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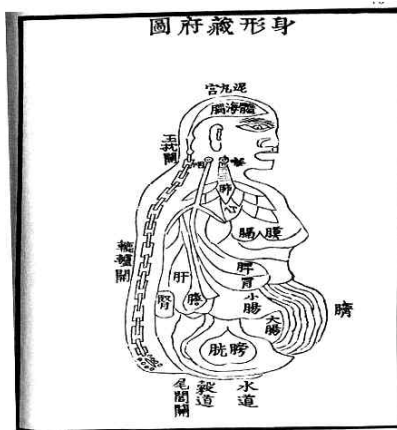
2. 身形臟腑圖와 他 內景圖와 의 비교

身形臟腑圖에는 중국의 다른 內景圖에 없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泥丸宮, 髓海腦, 三關, 三丹田, 尾閭骨이 그것이고, 또한 각 內景圖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內景圖 뿐만 아니라 각 서적의 목차를 보면 어떤 내용이 중요시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에도 각각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東醫寶鑑이 주로 인용 되었거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그림의 내용이 비슷한 萬病回春, 醫學入門, 類經圖翼과 주로 비교하겠으며, 목차의 비교도 東醫寶鑑에서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되는 精·氣·神 및 내경편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의 위치 및 내용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1) 內景圖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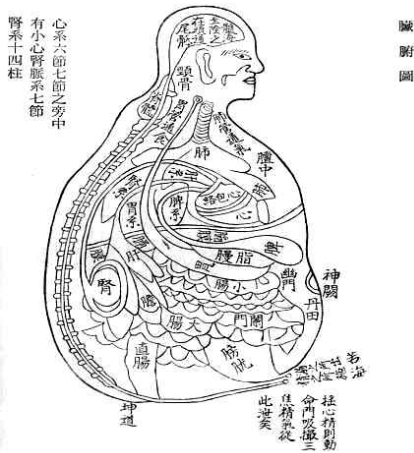
<東醫寶鑑·身形臟腑圖>



<萬病回春·側身人圖>



<類經圖翼·內景圖>



<醫學入門・臟腑圖>

1) 泥丸宮과 髓海腦

泥丸宮은 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上丹田을 말하기도 하고, 腦를 말하기도 하며, 백회혈의 異名이기도 하다.¹¹⁾ 도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 인체에 내재하는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정통적으로 도

가에서는 存思라는 명상법을 통하여 신들의 생기를 뇌 부위에 보전하는 수련법을 불사의 비결로 삼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도가의 신체관은 腦髓를 생명 물질의 근본이 응축된 장소로 파악하였는데¹²⁾, 東醫寶鑑에서도 뇌부위를 泥丸宮이라 명명한 것은 許浚의 인체관이 道家에 매우 가까웠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內景圖에는 泥丸宮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內景圖 중 뇌를 표시한 것은 身形臟腑圖 뿐이다. 醫學入門에서도 臟腑圖와 함께 髓海腦에 관하여 설명해 놓았지만 內景圖 자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東醫寶鑑이 유일한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泥丸宮에 대하여

	東醫寶鑑	萬病回春	醫學入門	類經圖翼
頭部	髓海腦, 泥丸宮	髓海,	髓海 至陰之在頭通尾骶	腦海 至陰通於尾骶
三關의 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下丹田의 유무	없음	있음	있음	있음
尾閭骨의 표시	있음	없음	없음	없음
心和 心包	심만 있음	심포만 있음	심과심포 있음	심과심포 있음
心和 五臟의 系	없음	흔적만 있음	있음	있음
命門의 有無	없음	없음	없음	있음
幽門 小腸 蘭門	소장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표1. 각 內景圖의 비교

“谷者天谷也 神者 一身之元神也 天之谷 含造化 容虛空 地之谷 容萬物 載山川 人與天地同所稟 亦有谷焉 其谷藏眞一 宅元神 是以頭有九宮 上應九天 中間一宮 謂之泥丸 又曰黃庭 又名崑崙 又謂天谷 其名頗多 乃元神所住之宮 其空如谷 而神居之 故謂之谷神”, “頭有九宮 腦有九辨 一曰雙丹宮 … 三曰泥丸宮 … 各有神以主之 謂之元首九宮眞人也 <黃庭>問泥丸宮正在何處 答曰 頭有九宮中曰泥丸 九宮羅列 七竅應透 泥丸之宮 魂魄之穴也”¹³⁾, “人之脊骨二十四節 節之末名曰尾閭穴 又名龍虎穴 又名曹溪路 又名三岔路 又名河車路 又名朝天嶺 又名上天梯”라 하였다.

髓海腦에 관하여 “腦者髓之海 諸髓皆屬於腦 故上至腦 下至尾骶 皆精髓升降之道路也<入門> 髓者骨之充也 髓傷則腦髓消燦 體解依然不去也 註曰 不去者 不能行去也<內經> 腦者頭之盖骨也 百會穴分是也”라 하였다.¹⁴⁾

2) 三關

三關은 인체의 뒷면에 있는 3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이 있다.¹⁵⁾ 三關도는 도가에서 기가 독맥에서 올라갈 때 지나게 되는 세 관문으로 표현¹⁶⁾되어 있는데 역시 東醫寶鑑의 道家的 人體觀을 보이는 부분이다. 다른 內景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東醫寶鑑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仙經曰 背後有三關 腦後曰 玉枕關 夾脊曰 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得斗柄之機幹運則 上下循環如天河之流轉也 翠虛篇曰採之煉之未片餉一氣眇眇通三關 三關來往氣無窮 一道白脉朝泥丸 泥丸之上紫金鼎 鼎中一塊紫金團化爲玉漿流入口香清爽遍舌端 參同契註曰人身氣血往來循環于上下晝夜不停猶江河之水東流至于海而不竭殊不知名山大川孔穴皆相通也水由地中行盖循環相往來也日月之行亦然”¹⁷⁾

“背有三關 … 精氣升降之道路也”¹⁸⁾

1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 833.

12) 김승혜, 道教 상정파의 생명관, 한국道教문화학회 道教문화연구 제 12집, 1998 :28-38

13) 許浚, 前掲書 : 487.

14) 上掲書 : 487.

1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前掲書, 1990 : 465

16) 유화양, 해명경, 서울, 여강출판사, 1994 : 217

17) 許浚, 前掲書 : 120.

① 玉枕關

玉枕關은 東醫寶鑑에서는 腦後라 하였는데 주골의 최상단부¹⁹⁾ 혹은 풍지혈 사이²⁰⁾의 부위이다.

② 轆轤關

轆轤關은 東醫寶鑑에서는 夾脊이라 하였는데 慧命經에서는 “척추제 12절 아래라는 설과 신장이 있는 부위라는 설이 있는데 수련을 통해 알 수 있다”²¹⁾고 하였다.

③ 尾閭關

尾閭骨은 다른 內景圖에서는 특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身形臟腑圖에서만 볼 수 있는 기관이다. 다른 장부도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9개의 구멍이 잘 표시되어 있어 특별히 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尾閭骨은 泥丸宮과 연결되어 있는 말단의 기관으로 정수 즉 수화의 기운이 발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精’의 흐름을 중시하는 許浚은 이 부분을 허술하게 지나칠 수 없었다.

18) 上揭書 : 656.

19) 오수양. 천선정리. 서울. 서림문화사. 1994 : 68.

20) 張和. 中國氣功學. 中國. 五州出版社 : 360.

21) 유화양. 前揭書 : 106.

尾閭關에 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問背後三關 答曰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乃精氣升降之道路也<正理> ○人之脊骨二十四節節之末名曰尾閭穴又名龍虎穴又名曹溪路又名三岔路又名河車路又名朝天嶺又名上天梯 ○尾閭穴之骨 頭圓如潼金 上有九竅 內外相連即泥丸宮也 ○脊骨兩傍 三條逕路 上衝直至頂門泥丸宮 下降復至丹田 復連至尾閭穴 ○尾閭穴乃下關也 從下至上十八節乃中關也 泥丸宮爲上關 此三關也<正理>”²²⁾라 하였다.

3) 三丹田

身形臟腑圖에는 다른 장부도와는 달리 제하 3촌 부근의 단전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단전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東醫寶鑑에서는 단전을 상·중·하로 나누어 腦를 상단전, 心을 중단전, 제하3촌을 하단전으로 하여 삼단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內景圖처럼 하단전에만 단전의 표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심의 위치에 심과 중단전, 혹은 상단전의 위치에 뇌와 상단전을

22) 許浚. 前揭書 : 656.

표시하기가 매끄럽지 못했을 것이므로 하단전까지도 함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身形臟腑圖 이외의 內景圖에는 단전이 하단전 위치에 표시되어 있으나 身形臟腑圖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삼단전에 東醫寶鑑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仙經曰 腦爲髓海上丹田 心爲絳宮中丹田 臍下三寸爲下丹田 下丹田藏精之府也 中丹田藏神之府也 上丹田藏氣之府也”²³⁾

“下丹田在臍下三寸 方圓四寸 着於脊梁兩腎之間 左青 右白 上赤 下黑 中央黃色 名曰大海貯其精血 <正理> 十二經脉 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腎間動氣 卽下丹田也 此五藏六府之本 十二經脉之根 呼吸之門 三焦之源也<難經>”²⁴⁾

4) 骨과 腰脊, 髓

東醫寶鑑에서 骨과 腰脊은 外形篇에 나와있다. 骨과 腰脊 자체는 精·氣·神의 출입과 관계 없지만 骨은 髓와 관계되어 있고, 腰脊은 腦에서 이어진 脊髓가 尾閭骨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內經曰 骨者髓之府 … 髓者骨之充也<內經> ○骨爲髓之藏 髓者飲食五味之實秀也 髓虛則骨虛 勢所必至矣<直指>”

“靈樞曰 臂骨以下至尾骶二十一節長三尺 ○脊節謂之頤 脊窮謂之骶 <內經> ○脊骨乃一身之大骨也<內經>”²⁵⁾

골과 요척은 그림상으로 모든 장부도에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2) 目次の 비교

1) 東醫寶鑑

內景篇을 시작으로, 그 내용에는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衝, 少便, 大便으로 되어있다. 그 외에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이 있다.

이 중 精·氣·神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內景篇에 나와있다.

23) 上揭書 : 120.

24) 上揭書 : 706.

25) 上揭書 : 764.

2) 醫學入門

內集 9권과 外集 10권으로 되어 있다. 內集에는 運氣, 經絡, 臟腑, 問診, 脈診, 鍼灸, 本草 등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外集은 溫暑, 傷寒, 內傷, 雜病, 用藥, 婦人, 小兒, 癰疽, 疥瘡, 拾遺, 그리고 치료방법의 개요 등이 실려있다.

여기서 精·氣·神과 관련된 내용은 臟腑篇이 있고, 제일 처음 나와있는 運氣, 經絡, 問診, 脈診, 鍼灸, 本草 등은 東醫寶鑑에서는 雜病篇 및 鍼灸篇과 유사한 부분으로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3) 萬病回春

모두 8권으로 되어있다. 1권에는 萬金一統術, 藥性歌, 諸病의 主藥, 形體論, 온몸 臟腑의 形狀으로 시작하여 12經脈歌가 실려있고, 권2에는 中風, 傷寒, 中寒, 溫疫, 中暑, 中濕, 火症, 內傷, 飲食, 鬱證, 痰飲, 咳嗽, 喘息, 哮吼가 소개되어 있다. 권3에는 瘡疾, 痢疾, 泄瀉, 霍亂, 嘔吐, 翻胃, 嘔逆, 噎氣, 吞酸, 嘈雜, 諸氣, 青筋, 痞滿, 腹脹, 水腫, 積聚, 五疳, 痼冷, 斑疹, 發熱이 실려있고, 권4에는 補益, 虛勞, 失血, 惡熱, 惡寒, 寒症, 眩暈, 麻

木, 癲狂, 癰證, 健忘, 怔忡, 驚悸, 虛煩, 不寐, 邪祟, 厥證, 脫證, 遺精, 淋證, 關格, 遺溺, 小便閉, 大便閉, 大小便閉, 痔漏, 懸癰, 休氣, 脫肛, 諸虫이 있고, 권5에는 頭痛, 鬢髮, 面病, 耳病, 鼻病, 口舌, 牙齒, 眼目, 咽喉, 結核, 梅核氣, 癭瘤, 肺癰, 肺痿, 心痛, 腹痛, 腰痛, 脇痛, 臂病, 背痛, 痛風, 脚氣, 癰疽, 痿痹, 消渴, 瘰癧이 있고, 권6은 婦人科, 권7은 小兒科, 권8은 外科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精·氣·神과 관련있는 내용은 권1의 萬金一統術, 形體論, 온몸장부의 형상이 있으며, 제일 첫 권의 일부에 있다.

4) 類經

1권은 攝生類, 2권은 陰陽類, 3권과 4권은 臟象類, 5권과 6권은 脈色類, 7권에서 9권은 經絡類, 10권은 標本類, 11권은 氣味類, 12권은 論治類, 13권에서 18권은 疾病類, 19에서 22권은 鍼刺類, 23에서 28권은 運氣類, 29에서 32권은 會通類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精·氣·神과 관련있는 부분은 1권의 攝生類, 2권의 陰陽類, 3,4권의 臟象類이고, 제일 첫 부분

에 소개되어 있다. 內景圖는 類經圖翼의 3권 경락에 나와 있다.

3. 東醫寶鑑의 醫學思想

(1) 氣化論

‘精氣’라는 개념은 이미 <<管子>>등에서 보이는 것으로 <<呂氏春秋>>에서는 <<道德經>> 1장의 논지와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道라는 것은 지극히 ‘精’하여 형상으로 표현될 수도 없고, 이름 부를 수 없으니 역지로 이름하여 ‘太一’이라고 한다”²⁶⁾고 하였다. 太一이라는 것은 <<管子>>등에도 나오는 용어로 精氣의 다른 이름인데,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정기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과 천지는 서로 상응하는 구조로 파악한다.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와 천지 자연의 구조가 형상적으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東醫寶鑑은 氣의 변화 즉 氣化로 인간의 생명이나 천지만물의 생성이나 변화를 설명하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內景篇과 雜病篇의 서두에 주로 나오는 ‘氣’와 ‘氣化’의 서술 특징은 內經의 논의와 內丹思想, 그리고 금원사대가를 비롯한 儒醫²⁷⁾들의 논의가 한 조목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경편의 서두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형의 부분에서도 내경의 소문과 영추를 기본으로 하여 參同契注, 臞仙(臞僊), 太平聖惠方, 抱朴子, 延壽書, 등의 의서와 道教書가 시대 구분 없이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내경편의 精氣神의 부분도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인신을 비롯한 형기의 다양한 변화를 학문의 내용으로 삼는 의서 서술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상유파들이 사상적 배경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²⁸⁾

東醫寶鑑의 서두에서는 인간 생명의 탄생을 天人相應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

身形臟腑圖에서는 당대 孫思邈의 이야기를 빌어 “사람은 하늘과 땅

26) <<呂氏春秋·大樂>> “道也者 至精也 不可爲形 不可爲名 彊爲之謂之太一”

27) 성호준, 東醫寶鑑의 ‘性’·‘情’에 관한 유가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vol.14, 2004 : 141.

28) 성호준,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95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았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하늘에는 사시가 있고 ... 땅에는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혈액이 있다. 땅에는 초목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모발이 있으며, 땅에 쇠와 돌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四大와 오상을 받아 조화하여 형체를 이룬다”라고 하여 천인이 상응하는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²⁹⁾

胎孕之始에서는 “聖惠方에는 천지정기는 만물의 형체로 변화된다. 아버지 정기는 혼이 되고 어머니 정기는 백이된다. 임신 1달이 되면 ...”라고 하여 천지정기를 받아서 태아가 자란다고 하였고, 또한 “상양자는 사람은 처음 기를 받을 때 9일이면 음양이 정해지고 ... 306일에서 286일이 되어 낳은 아이는

좋은 인재가 되며 ... 256일에서 246일이 되어 얇은 아이는 가장 낮은 인품이 된다”고 하여 임신의 시기를 채워 기를 제대로 받아야 좋은 인재가 될 수 있고, 기를 적게 받으면 인품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³⁰⁾

<四大成形>에서는 “불교에서는 地·水·火·風이 화합하여 사람이 된다. ... 토가 흩어지면 몸은 상한다”고 하였고, 또한 “상양자는 털, 이, 뼈, 손톱, 발톱은 땅에 의존하고 ...”라고 하여 사대(地·水·火·風)와 인신 각 조직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³¹⁾

30) 上揭書 : 116.

“聖惠方曰天地之精氣化萬物之形父之精氣爲魂母之精氣爲魄一月懷其胎如酪二月成其果而果李相似三月有形像四月男女分五月筋骨成六月鬢髮生七月遊其魂而能動右手八月遊其魄而能動左手九月三轉身十月滿足母子分解其中有延月而生者富貴而壽有月不足者貧賤而夭 ○上陽子曰人初受氣也九日而陰陽大定四十九日而始胎然後七日而一變故滿三百有六日者滿二百九十六日者皆上器也有二百八十六日者二百六十六日者中器也有二百五十六日者二百四十六日者下器也蓋天干甲必合己而方生地支丑必合子而方育自非天地合德則人必不生也故云九月神布氣滿而胎完亦云十月懷胎也此天地之德合於氣而後生也”

31) 上揭書 : 117.

“釋氏論曰地水火風和成人筋骨肌肉皆屬乎地精血津液皆屬乎水呼吸溫煖皆屬乎火靈明活動皆屬乎風是以風止則氣絕火去則身冷水竭則無血土散則身裂○上陽子曰鬢齒骨甲假之于地涕精血液假之于水溫煖燥熱假之于火

29) 許浚. 前揭書 : 115.

“孫真人曰 天地之內 以人爲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行 人有五藏 天有六極 人有六府 天有八風 人有八節 天有九星 人有九竅 天有十二時 人有十二經脉 天有二十四氣 人有二十四俞 天有三百六十五度 人有三百六十五骨節 天有日月 人有眼目 天有晝夜 人有寤寐 天有雷電 人有喜怒 天有雨露 人有涕泣 天有陰陽 人有寒熱 地有泉水 人有血脉 地有草木 人有毛髮 地有金石 人有牙齒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

形氣之始에서는 “ 건작도에서는 ‘하늘의 형체는 건에서 나오는데, 이에 태역, 태초, 태시, 태소가 있다. 태역은 기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요, 태초는 기의 시작이며, 태시는 형의 시작이요, 태소는 질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 열자는 ‘태초는 기의 시작이요 태시는 형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런 부류이다”³²⁾라고 하여 기의 탄생 및 분화에 따른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였다.

(2) 精·氣·神

1) 精

精은 <<說文解字注>>에서 擇米也라 하고, 從米青聲이라 하니³³⁾

靈明活動假之于風四大假合而生也地之盛也骨如金水之盛也精如王火之盛也氣如雲風之盛也智如神

32) 上揭書 : 116.

“乾鑿度云 天形出乎 乾有太易太初太始太素 夫太易者未見氣也 太初者氣之始也 太始者形之始也 太素者質之始也 形氣已具而病病者療療者病病由是萌生焉人生從乎太易病從乎太素○參同契註曰形氣未具曰鴻濛具而未離曰混論易曰易有太極是生兩儀易猶鴻濛也太極猶混淪也乾坤者太極之變也合之爲太極分之爲乾坤故合乾坤而言之謂之混淪分乾坤而言之謂之天地列子曰太初氣之始也太始形之始也亦類此”

33) 殷玉裁, 許慎. 說文解字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0 : 331.

수곡 중에서 가장 정미로운 것을 가려 정이라 칭하였다. 이는 광의로 후천지정이라 하는데 오미에서 비롯된 수곡의 정미로움으로부터 생화하고 종국에 신에 저장되어 오장육부에 까지 수포되는 정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의 정은 선천지정이라 하여 신에 저장되었던 정이 인간의 생식 뿐만 아니라 생장 발육 노쇠와 깊이 관련되는 稟賦로서의 정으로 인식되며, 선천지정과 후천지정은 상호 의존하고 보충하는 관계가 있어 모든 생리 기능과 현상에 물질적 기본 요소가 된다.³⁴⁾

① 髓海腦, 骨, 腰脊과 精

身形臟腑圖에 나와있는 수해뇌, 골 및 요척의 그림에는 정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 東醫寶鑑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靈樞曰兩神相薄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精者身之本也 又曰 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 內滲入于骨空 補益髓腦而下流于陰股 陰陽不和則使液溢而下流于陰下 過度則虛 虛則腰背痛而脛痠 又曰髓者骨之充

34) 鞠淳鎬, 美政秀. 東醫寶鑑중의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고찰(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vol5(2) : 194.

腦爲髓海”³⁵⁾

② 五臟과 精

身形臟腑圖의 오장육부에는 각각 정이 포함되어 있다.

“難經曰 心盛精汁三合 脾有散膏半斤 膽盛精汁三合 內經曰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註云腎爲都會關司之所 非腎一藏獨有精也 五藏各有藏精並無停泊于其所 盖人未交感精涵于血中未有形狀 交感之後 慾火動極而周身流行之血至命門而變爲精以泄焉 … <眞詮>”³⁶⁾

2) 氣

氣는 <<說文解字注>>에 “饋客之芻米也”라 하여 從米從氣로 取象하니³⁷⁾ 氣字의 뜻은 구름 기운이란 뜻이다. 구름기운이란 아직 구름으로 엉키기 전의 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米 자의 뜻은 사통팔달을 의미하는 것인 즉, 統一綜合의 의미가 있다.³⁸⁾ 氣는 아주 미세한 물질인 동시에 활동성이 강하여 부단히 운동하는 물질이며, 전체인 우주와 개체인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이다. 인간은 신체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에서 비를 통해 후로 대기를 받고 지에서 구를 통해 인후로 오미가 화생한 수곡지기를 받아 이를 합하여 후천지기를 생성하고 부모로부터 부정모혈을 받아 선천지기를 이룬다. 이를 유형적 무형적 기능과 구조에 작용하여 기의 推動, 溫照, 防禦, 固攝, 氣化作用을 가능케 한다. 고로 기는 생명활동의 에너지이며, 생리기능을 촉진하는 주요 물질이다.³⁹⁾

東醫寶鑑에서는 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靈樞曰人受氣於穀 穀入於胃以傳與肺 五藏六府皆以受氣 其清者爲榮 其濁者爲衛 榮在脉中 衛在脉外 營周不休五十度而復大會 陰陽相貫如環無端 又曰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正理曰 日啖飲食之精熟者益氣 此氣生於穀故從氣從米 人身之中 全具天地陰陽造化之氣 得勤而用之”⁴⁰⁾

“難經疎曰 十二經脉者 皆係於生

35) 許浚. 前掲書 : 142

36) 上掲書 : 143.

37) 殷玉裁, 前掲書 : 333.

38) 韓東錫.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74 : 116.

39)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공저. 동의생리학.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 82.

40) 許浚. 前掲書 : 157.

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腎間動氣也 此五藏六府之本 十二經脉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氣者人之根本也”⁴¹⁾

“氣者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精神之根蒂也”⁴²⁾

“上丹田藏氣之府”⁴³⁾

3) 神

神은 <<說文解字注>>에서 “神天神引出萬物者也”라 하여 從示從申이라 취상하니,⁴⁴⁾ 神은 만물을 인출하는 천신을 가리키며, 천지시생 만물화생 변화창조의 주재이다. 인체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일절의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신은 본래 巫俗的 요소에서 비롯되어 <<周易>>에서 보면 <繫辭傳>에서 이르기를, “陰陽不測爲之神”⁴⁵⁾이라 하고 또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平”⁴⁶⁾라 하니, 변화막측한 음양의 변화를 신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道敎의 경전인 <<黃庭經>>의 영향을 받아 신을

정신작용으로만 보지 않고 신령의 개념으로도 파악하여 인간의 오장육부의 저마다 신이 있으며,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신체의 백적레 모두 신이 존재한다. 이들 신은 장부의기가 끊어지면 밖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병자가 보기도 한다. 신에 관하여 許浚은 특히 道敎의 학설을 많이 인용하여 인신에 깃들여 있는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신의 형태와 작용을 형이하학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실체 느낄 수 있게 하였다.⁴⁷⁾

東醫寶鑑에서는 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內經曰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無名子曰 天一生水 在人曰精地 二生火在人曰神 ○回春曰 心者一身之主 清淨之府 外有包絡以羅之 其中精華之聚萃者名之曰神 通陰陽 察纖毫 無所紊亂. ○邵子曰 神統於心 氣統於腎 形統於首 形氣交而神主乎其中 三才之道也. ○內經曰 太上養神 其次養形 故養神者 必知形之肥瘦 榮衛血氣之盛衰 血氣者人之神 不可不謹養也 註云 神安則壽延 神去則形弊 故不可不謹養

41) 上揭書 : 159.

42) 上揭書 : 157.

43) 上揭書 : 120.

44) 殷玉裁, 前揭書 : 3.

45) 金碩鎮, 주역강해, 서울, 대유학당, 1993 : 312.

46) 上揭書 : 328.

47) 鞠淳鎬, 美政秀, 前揭書 : 198.

也”⁴⁸⁾

“臞仙曰 心者神明之舍 中虛不過徑寸而神明居焉 事物之滑 如理亂 焚 如涉驚浸 或怵惕 或懲創 或喜怒 或思慮 一日之間 一時之頃 徑寸之地 炎如火矣 若嗜慾一萌 卽不善也 歸而勿納 是與良心競也 凡七情 六慾之生於心皆然 故曰心靜可以通乎神明 事未至而先知 是不出戶知天下 不窺牖見天道也 盖心如水之不撓 久而澄清 洞見其底 是謂靈明 宜乎靜可以固元氣 則萬病不生 故能長久 若一念既萌 神馳於外 氣散於內 血隨氣行 榮衛昏亂 百病相攻 皆因心而生也 大概怡養天君 疾病不作 此治心之法也 ○內經曰 心藏神 神有餘則笑不休 神不足則悲 註云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也”⁴⁹⁾

“內經曰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又曰脾藏意 與智 腎藏精與志 是謂七神 註云 神者精氣之化成也 魄者精氣之匡佐也 魂者神氣之輔弼也 意者記而不忘者也 志者專意而不移者也 ○靈樞曰 兩精相薄謂之神 隨神往來謂之魂 並精出入謂之魄 心有所憶謂

之意 意之所存謂之志 因慮而處物 謂之智也”⁵⁰⁾

4) 精·氣·神의 관계

東醫寶鑑에서는 精·氣·神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故一身之中以精氣神爲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故修真之士若執己身而修之無過煉治精氣神三物已 邵康節曰神統於心 氣統於腎 形統於首 形氣交而神主乎其中三才之道也”⁵¹⁾

“下丹田藏精之府也 中丹田藏神之府也 上丹田藏氣之府也”⁵²⁾

“精者身之本 氣者神之主 形者神之宅也”⁵³⁾

“東垣曰 氣者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精神之根蒂也 茅眞君曰 氣是添年藥 心爲使氣神若知行氣主便是得仙人<養性>”⁵⁴⁾

Ⅲ. 考 察

오늘날 고대 중국의 의서들 중 內景圖를 수록하였다고 전해지는

48) 許浚, 前掲書 : 179.

49) 上掲書 : 179.

50) 上掲書 : 181.

51) 上掲書 : 120.

52) 上掲書 : 120.

53) 上掲書 : 121.

54) 上掲書 : 157.

책들이 여럿 있지만 모두 현존하지 않고 서목으로만 확인될 뿐이다. 반면에, 도가 계통의 서적들은 상당수의 인체 내부도 잔형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의학은 의가들의 노력 뿐 아니라 道家들에 의해서도 발달되었기 때문이다.⁵⁵⁾

東醫寶鑑에서도 黃庭經의 말을 빌어 五臟神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五臟神의 그림이 內景圖 및 五臟圖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지만 東醫寶鑑의 시대에는 五臟神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타 의학 서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 단지 구조적인 면을 더 강조하게 된 것 같다. 이 五臟神은 五臟의 五行에 배속되는 색을 지니고 있어 五臟의 五行的 氣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사료되며,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비록 시대적인 면을 고려하여 身形臟腑圖 안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五臟神이라는 것을 따로 설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內景圖 중 <<萬病回春>>

의 <側身人圖>, <<醫學入門>>의 <內景圖>가 <身形臟腑圖>와 가장 근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체의 내부를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고 머리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萬病回春>>의 內景圖는 <身形臟腑圖>와 거의 흡사하다. 許浚이 <<萬病回春>>의 內景圖를 기본으로 <身形臟腑圖>를 작성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중국 의서에서 강조한 인체도의 내용과 東醫寶鑑에서 강조하려던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萬病回春>> 등의 內景圖는 인체 내부의 臟象을 잘 표현하기 위한 內部圖로 내부 장기의 모습을 정확히 그리는 데 충실한 반면에 許浚은 이들처럼 臟象을 중시하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인체의 중요한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⁵⁶⁾

許浚에게 가장 중요한 인체의 요소는 바로 척추와 두뇌 사이를 흐

55) 김호, 前掲書 : 179.

56) 上掲書 : 184-185.

르는 ‘精’이었다. 인간을 탄생시키는 가장 주요 요소인 선천의 정과 형성된 인체의 생명을 유지토록 하는 후천의 정이 집적된 장소가 바로 腦海이며, 뇌와 연결된 脊椎의 脊髓를 통해 생명 물질인 정이 온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精을 표현하기 위해서 許浚은 <身形臟腑圖>에서 頭部の 腦海와 脊髓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身形臟腑圖>에서 許浚은 頭部를 泥丸宮이라고 명명하였다. 두뇌를 泥丸宮이라 표기한 방식은 道家식 전통이었다. 도가에서는 뇌의 이름을 정근, 자를 니환이라 부르는데, 뇌는 인체에 내재하는 신들(九眞)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도가들은 存思라는 명상법을 통하여 신들의 생기를 뇌 부위에 보존하는 수련법을 불사의 비결로 삼고 있었다.⁵⁷⁾ 기본적으로 도가의 신체관은 뇌수를 생명 물질의 근본이 응축된 장소로 파악하였는데 <身形臟腑圖>에서 뇌 부위를 泥丸宮이라 명명한 것 역시 저자 許浚을 비롯하여

<<東醫寶鑑>>의 저술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성향이 道家에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물론 전통적으로 중의학이 도가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萬病回春>>이나 <<醫學入門>>에서 두뇌를 泥丸宮이라는 도가의 단어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身形臟腑圖>>는 훨씬 더 도가적 경향을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다.

뇌수를 인체의 몸통과 연결해 주는 脊椎를 살펴보면 <身形臟腑圖>에서 許浚은 연결의 고리를 三關으로 설명하였다. 이른바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이다.

“선경에서 말하길 몸 뒷부분에는 三關이 있는데 뇌의 뒤를 玉枕關이라 하고, 협척을 轆轤關이라 하며, 수화가 교류되는 곳을 尾閭關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다 정기가 오르내리는 길이다. 이것은 마치 북두칠성의 자루가 한바퀴 돌 때와 같아서 위 아래로 순환하는 것이 은하수가 북두칠성을 따라 도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⁵⁸⁾

58) 許浚. 前掲書 : 120, 656.

‘仙經曰 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得斗柄之機 幹運則上下循環 如天河之流轉也’ ‘背有三關 …’

57) 김승혜. 道敎와생명사상. 아세아문화사. 1998 : 34.

許浚이 <身形臟腑圖>에서 精과 관련한 기관을 중시했음은 <身形臟腑圖>의 척추 부위와 명초 의서들의 도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許浚은 <身形臟腑圖>에서 척추를 고리처럼 24마디의 사슬로 표현하여 정확하게 그려 놓았는데 척골이 모두 24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의학 지식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미려함을 도식한 부분은 더욱 중요하다. 척추의 꼬리뼈 근처에 이르면 許浚은 모두 9개 구멍의 尾閭穴의 뼈 상태를 표시하였다. 즉 등글고 위에 9개의 구멍이 있다는 尾閭骨의 특징을 자세히 그려 놓은 것이다. 이 부분이 尾閭骨의 밋밋하게 표현한 <<萬病回春>> 등의 內景圖와 許浚의 身形臟腑圖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다.

身形臟腑圖에는 다른 內景圖와는 달리 단전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단전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장부도와는 달리 東醫寶鑑에서는 단전을 상·중·하로 나누어 뇌를 상단전, 심을 중단전, 제하3촌을 하단전으로 하여 삼단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가의 삼단전을 그

리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다른 內景圖처럼 하단전만 단전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심의 위치에 심과 중단전, 혹은 상단전의 위치에 뇌와 상단전을 함께 표시하기가 매끄럽지 못했을 것이므로 하단전까지도 함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은 그 편차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精·氣·神의 이론에 기초한 편차라는 것인데, 그로 인해 精·氣·神과 관련된 장부 및 구조인 경우 內景篇에 분류하였고, 그 위치가 내부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精·氣·神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외형편에 분류하였다. 즉 골의 경우 외형편에 수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골수가 精·氣·神과 관련된 중요한 장부로 인식한 것이지 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외형편으로 분류된 것이다.

醫學入門의 편차중 精·氣·神과 관련된 내용은 장부편이 있고, 제일 처음 나와있는 運氣, 經絡, 問診, 脈診, 鍼灸, 本草 등은 東醫寶鑑에서는 雜病篇 및 鍼灸篇인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內景圖는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萬病回春의 편차중 精·氣·神과 관련있는 내용은 권1의 萬金一銃術, 形體論, 온몸장부의 형상이 있으며, 제일 첫권에 있다. 內景圖는 권1의 형체론에 위치하고 있다.

類經의 편차중 精·氣·神과 관련있는 부분은 1권의 攝生類, 2권의 陰陽類, 3,4권의 臟象類이고, 제일 첫 부분에 소개되어 있다. 內景圖는 類經圖翼의 3권 경락에 나와있고 內景賦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타 서적의 내용중 精·氣·神 그리고 內景圖와 관련있는 부분은 대체로는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요성의 인식에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東醫寶鑑이 전체 내용중 약 1/6이 內景篇인 것에 반하면 그 양이 매우 적고, 精·氣·神 및 三關, 三丹田, 泥丸宮 및 五臟神 등의 도가적인 내용이 없어 東醫寶鑑과 그 중요성의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는 기본적으로 인체내의 五臟六腑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許浚의 기본 의학사상인 道家思想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기존의(身形臟腑圖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內景圖와는

달리 泥丸宮과 髓海腦, 三關, 尾閭骨의 표현을 하게 되었고, 下丹田의 표시는 생략하게 된 것이다. 또한 東醫寶鑑의 의학사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道家思想인 元氣論(氣化論)이나 精·氣·神 사상을 東醫寶鑑의 가장 처음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內景篇 身形臟腑圖에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東醫寶鑑>>에서는 사람의 몸이 안으로는 오장육부, 밖으로는 筋骨肌肉血脈皮膚로 되어있지만 그 주체는 精·氣·神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道教에서 주장된 학설인데, 道教에서는 생명활동을 생명체의 시공간적 편차에 의거하여 精·氣·神의 삼보설로 인식하였다. 이들 삼요소는 근원에 있어서 形氣未具한 鴻濛의 상태에서부터 具而未離한 渾淪의 상태로 변화하여 비록 역에서 태극으로 전환되는 상태로 선천의 무형이지만 이미 작용하여 형상화되면 단순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적 편에 의해 상호변화하여 후천적으로 세가지 요소가 형성되었고 이는 삼재설에 의해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세가지 바탕, 즉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대표하여 사람으로서 삼재를 삼아 이 삼재의 도가 지극한 묘용을 갖는다 하여 삼극이라고도 일컬으며, 역은 이 삼재, 즉 삼극을 근본원리로 하였다.⁵⁹⁾ 이때 삼은 우주변화 원리에서 일에 이를 가한 것이라 하여, 통일의 본체인 純陽一과 분산의 주체인 至陰二의 음양이 합성된 것으로 곧 음양의 混成體이다. 일이 이로 발전하려면 삼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삼을 가리켜 일수가 이화를 생하는 傍助者가 된다고 하니, 獨陽인 일은 절대적으로 음의 통일적인 압력하에서만이 자기의 성질을 발휘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고로, 독양은 반드시 혼성체인 삼을 얻으므로써 우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⁶⁰⁾

許浚은 원론적인 창조론에 입각한 精·氣·神이론을 도입하여 인간의 생명구성요소를 精·氣·神의 삼요소로 보았으며, 이 삼요소는 각각 따로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속에서 기의 상태로

나타나며, 인체의 양면적인 정신과 육체는 이원적 요소의 결합이 아닌 기의 왕래에 의한 순역의 결과로 변화한 일원적 관점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도가삼보라고 불리워지는 精·氣·神의 이론을 기초로 인체를 온전히 보존하여 생의 근본을 기른다는 <<東醫寶鑑>>만의 독창적인 양생사상을 성립하였다.⁶¹⁾

東醫寶鑑의 특색이 드러나는 것은 신에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상청과 道教 경전인 황정경⁶²⁾의 내용을 담아 인신의 장부와 기관을 신들의 세계로 표현하고, 存思·存神⁶³⁾을 통하여 내단사상과 의서를 연결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니환 등 인신 내에는 무수히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각기 그 신의 이름과 기능을 서술하기도 하였다.⁶⁴⁾

61) 鞠淳鎬, 美政秀. 東醫寶鑑중의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고찰(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vol5(2) : 193.

62) 박현국, 박성범. 황정경에 나타난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3권. 1994

63) 성호준. 前掲書 : 122.

64) 許浚. 前掲書 : 180.

“黃庭經曰 肝神龍烟字含明形長七寸青錦衣鳳玉鈴狀如懸瓠其色青紫心神丹元字守靈形長九寸丹鈴飛裳狀如未開垂蓮其色赤脾神常在字魂停形長七寸六分黃錦之衣狀如覆盆其色黃肺神皓華字虛成形長八寸

59) 金碩鎭. 주역과 세계. 서울. 동신출판사. 1988 : 47

60) 韓東錫. 前掲書 : 152.

人身의 장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신이 거주하는 이유는 道家·道敎에서 말하는 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황정경은 상청과의 책으로 무형의 도에서 무형의 도로 돌아가는 생명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가 천계의 무수한 신선들로 생명의 영화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그 동일한 신선들을 體內神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인신-소우주’라는 天人相應의 사유로 보여지는데 體內神을 보존하고 명상함으로써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참된 기운을 키울 뿐 아니라 도의 원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체내신은 천상적 존재로서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人身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기를 다스리고 유지시켜 준다. 체내신은 원초적인 기로서의 도가 신적 이미지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⁶⁵⁾

東醫寶鑑에서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넓은 의미의 신은 생명현상을 통일적으로 주관하는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작용의 총칭이며 그 작용은 오장이 소유한 각 신으로 분할된다. 좁은의미의 신은 심장에 머물러 각종 정신활동을 통괄하는 신(칠정 - 喜怒憂思悲恐驚, 魂神意魄志)의 의미이다.

이러한 氣化論적인 인간관과 精·氣·神에 입각한 의학관을 가지고 東醫寶鑑을 만든 許浚은 맨 처음 부분을 內景篇으로 하여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부분 身形臟腑圖를 가지고 그의 人間觀과 醫學觀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것이다.

素錦衣裳黃雲之帶狀如華蓋覆髻其色紅白
腎神玄冥字育嬰形長三寸六分蒼錦之衣狀
如圓石其色黑膽神龍曜字威明形長三寸六
分九色錦衣綠華裙狀如懸瓠其色青 ○正
理曰黃庭經云至道不煩決存眞泥丸百節皆
有神神名最多莫能枚舉身中有三部上部八
景★神胸神眼神鼻神耳神口神舌神齒神中
部八景肺神心神肝神脾神左腎神右腎神膽
神喉神下部八景腎神大腸神小腸神胸神胃
神膈神兩脇神左陽神右陰神身中有九宮眞
人(心爲絳宮眞人腎爲丹元宮眞人肝爲蘭
臺宮眞人肺爲尚書宮眞人脾爲黃庭宮眞人
膽爲天靈宮眞人小腸爲玄靈宮眞人大腸爲
末靈宮眞人膀胱爲玉房宮眞人)又有元首
九宮眞人(腦有九辨故頭有九宮一曰雙丹
宮二曰明堂宮三曰泥丸宮四曰流珠宮五曰
大帝宮六曰天庭宮七曰極眞宮八曰玄丹宮
九曰大皇宮也)又有金樓重門十二亭長身
外有一萬八千陽神身內有一萬八千陰神所
主者爲絳宮眞人即心主也又有三身神四智
神三魂神(爽靈胎光幽精)七魄神(尸狗伏矢
雀淫飛毒天賊除穢臭師)七元八識神假名
異字難可悉數心主乃一身之君萬神爲之聽
命焉故能虛靈知覺千變萬化”

65) 김승혜, 道敎 상청파의 생명관, 前掲書, 1998 :28-38

IV. 結 論

1. 五臟神은 道家 內景圖의 내용이며, 東醫寶鑑에서는 同 時代의 他 醫學書에서는 보이지 않는 五臟神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는 당시 중국 의서인 <<萬病回春>>의 <側身人圖>, <<醫學入門>>의 <內臟圖>, <<類經圖翼>>의 <장부도>에 비하여 해부학적으로는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고, 道敎的 氣化論이나 精·氣·神 이론에 부합하는 구조를 위주로 표현한 內景圖이다. 그러므로 다른 중국의 內景圖와 표현되어 있는 구조가 약간 다르다.
3. 여러 內景圖 중 腦와 泥丸宮, 三關을 표시한 것은 身形臟腑圖 뿐이다. 醫學入門에서도 臟腑圖와 함께 髓海腦에 관하여 설명해 놓았지만 內景圖 자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東醫寶鑑이 유일한 것이다.
4. 身形臟腑圖에는 다른 중국의 內景圖에 다 나와있는 下丹田의 표현

이 되어있지 않다. 타 의서는 下丹田만을 丹田으로 인식한 데 반하여, 東醫寶鑑은 上·中·下丹田 즉, 腦를 上丹田, 心臟을 中丹田, 제하 3촌을 下丹田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에 각각 두가지 명칭을 모두 표시하기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下丹田만 따로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

5. 다른 臟腑圖가 幽門, 小腸, 蘭門의 구분을 한 반면 身形臟腑圖에는 小腸만 표시한 이유는 水穀의 직접적인 이동이(精·氣·神의 이동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6. 醫學入門과 類經圖翼의 그림에 있는 心臟과 연결되어 있는 五臟의 연결(系)이 身形臟腑圖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東醫寶鑑에서 그 계의 의미는 精·氣·神의 이동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編次에 있어서 東醫寶鑑은 醫學入門, 萬病回春, 類經圖翼에 비하여 전체분량의 1/6에 해당하는 양과 그 위치가 첫 권에 있다는 것으로

精·氣·神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東醫寶鑑 제일 첫부분에 나와있는 身形臟腑圖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8.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는 東醫寶鑑의 醫學思想 및 人體觀인 氣化論 및 精·氣·神 思想和 관련하여 그려진 內景圖라 사료된다.

V. 參考 文獻

1.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2. 국순호. 東醫寶鑑중의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연구2.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vol.6(1).
3. 김호. 許浚의 東醫寶鑑 연구. 서울 : 일지사, 2003.
4. 박석준. 동아시아의 전근대 사회의 특성과 東醫寶鑑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4.
5. 최창록 옮김. 황정경. 서울. 도화문화사. 1993.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판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7. 김승혜. 道教 상청파의 생명관. 한국 道教문화학회 道教문화연구 제 12집.
8. 유화양. 해명경. 서울. 여강출판사. 1994.
9. 오수양. 천선정리. 서울. 서림문화사. 1994.
10. 張和. 中國氣功學. 中國. 五州出版社.
11. 성호준. 東醫寶鑑의 ‘性’ · ‘情’ 에 관한 유가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vol.14. 2004.
12. 성호준.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3. 殷玉裁, 許慎. 說文解字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0.
14. 鞠淳鎬, 美政秀. 東醫寶鑑중의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고찰(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vol.5(2).
1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공저. 동의생리학.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16. 金碩鎭. 주역강해. 서울. 대유학당. 1993.
17. 김승혜. 道教와생명사상. 아세아문화사. 1998.
18.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74.
19. 金碩鎭. 주역과 세계. 서울. 동신출판사. 1988.
20. 鞠淳鎬, 美政秀. 東醫寶鑑중의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고찰(2).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vol.6(1).
21. 박현국, 박성범. 황정경에 나타난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3권. 1994 .